

# 성결의 복음 넓히는 새해 되길 기원

신년감사에배 및 하례회, 100여 명 모여 희망의 한해 기원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신년하례식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 총회본부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1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이날 하례식은 총회주관으로 2025년 희망찬 한해를 기원하며 신년 인사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총회장 홍사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부총회장 이 천 장모의 기도 후, 회의록서기 전승환 목사의 성경봉독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찬양단의 찬양이 이어졌다.

총회장 김만수 목사도 '다시 생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년 메시지를 선포

했다. 김 총회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한해 동안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어느것 하나 부족함 없이 축복이 넘치고 영혼이 소생하는 은총이 새해에는 일어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국가와 민족, 총회와 전국교회, 해외선교, 교단부흥, 신학 교육 기관을 위한 기도를 이장호 장모, 이종동 강명국 황성환 목사가 차례로 기도했다.

이어 전 총회장 조병창 원로목사, 증경장로부총회장회 회장 강규열 장모가 각각 신년인사와 덕담을 통해 새해 비전과 희망을

당부했다. 이어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의 광고와 내빈소개 후, 원로 명예목사회 회장 고용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에는 서기 이명화 목사의 사회로 총회 임원,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전 총회장과 증경 부총회장, 국내외 지방회장 및 군선교사회, 신학기관장 및 이사, 총회직원, 교직사 및 성도들이 차례로 새해 인사를 나눴으며, 부서기 김성은 목사의 진행 아래 신년 케익 절단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 총회성결교신학교 겨울 영성수련회

탐비전센터서 양일간 개최



총회성결교신학교(학장 김순홍 목사)는 2024년 2학기 종강과 함께 주간반 학생과 사이버학생들이 함께 하는 겨울 영성수련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20~21일 까지 양일간에 걸쳐 불광동에 위치한 탐비전센터에서 진행된 영성수련회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학생들이 모여 뜨거운 찬양이 있었다. 김순홍 학장의 에스라 7장 10절을 본문으로 '신앙은 삶이다'라는 말씀과 차종관 교수의 '목사의 실제'라는 제목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실습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어서 이춘복 목사의 목회회상 시리즈 중 '쉬운목회'라는 책을 미리 읽고 발표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목회를 돌아보고 계획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2025년 신입생과 학교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잊지 않았으며 입학할 학생들을 마스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총회성결교신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며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섬기기를 기대한다. 입학문의 02)725-7078



총회장 김만수 목사

- 1. 2 총회 신년하례회 설교
- 3 한성연 신년하례회 부흥사회 신년하례회
- 6~8 한성연 교단장수련회
- 9 국내선교위원회 신년하례회 성결대학교 총동문회 신년하례회 한교총 임원회
- 12~18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
- 18 장로회전국연합회 총회
- 20~22 교단 목회자 평생교육



## 웨슬리언교단장협의회 제3회 정기총회 개최

3대 대표회장 류승동 총회장 추대



웨슬리언교단장협의회(이하 웨교협) 신입 대표회장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인 류승동 목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웨교협 제3회 정기총회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다.

웨교협은 존 웨슬리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교단들의 협의체로, 본 교단을 비롯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내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구세군 등 6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각 교단을 대표해 이영훈 기하성 대표총회장과 김정석 기갑 감독회장, 류승동 기성 총회장, 김만수 분교단

총회장, 윤분기 나성 총회장, 김병윤 구세군 한국국 총사령관 및 교단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신입 대표회장에는 류승동 기성 총회장이 박수로 추대됐다. 웨교협 대표회장은 회원 교단 총회장이 순번제로 맡고있다. 초대 대표회장은 이영훈 목사가 역임했고, 이어 이철 감독회장, 류승동 총회장이 3대 대표회장을 맡게 됐다.

류 신입 대표회장은 "섬김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드럽고 평안하게, 동시에 웨교협이 해야 할 일은 하도록 이끌겠다"며 "한국사회가 큰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시기, 웨슬리언 교단들이 성령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웨교협은 정권 인준의 건을 가결하고 다가오는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 성결대학교, 이민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지원 및 이민정책 발전 협력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 목사)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재림관 8층 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과 이민정책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이민정책 관련 연구와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민정책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자료 공유 ▲지역사회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연구 협력 및 지원 ▲지역사회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부 관련 연구, 지원 및 사업 ▲지역 산업 맞춤형 외국인 유

학생 취업 및 정부 체계 구축 연구 및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성결대 총장 김상식 목사는 "성결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외국인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이민정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민정책 연구와 지역사회의 외국인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성결대학교와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성결(聖衣)의 자부심 예문성역사



- 목회가운
- 장로가운
- 목회자 와이셔츠
- 성가대 가운
- 박사 가운
- 근조기
- 후드 스톨
- 성찬보

(02)2201-7259/010-3745-8636  
http://www.ymgown.co.kr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로2길 52 일광빌딩 2층 202호

## 국내외 성결가족을 하나로 잇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교단의 정통지 성결신문을 애독해주시고 협력해주시는 성결가족들께 알려드립니다. 그간 광고지면에 보여주신 성결가족들의 관심과 협조가 신문의 운영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로도 아래의 광고단가를 참고하시어 교회행사나 귀 성도들의 사업장을 전국교회에 알리는데 저희 성결신문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광고단가

지면	규격	금액
1면	전면 / 칼라(37cm x 17cm)	1,000,000
2~11면	전면 / 흑백(37cm x 17cm)	500,000
	전면1/2 흑백(18.2cm x 17cm)	300,000
	전면1/4 흑백(8.9cm x 17cm)	150,000
5, 8면	명함광고 / 흑백(9.2cm x 5.2cm)	50,000
	전면 / 칼라(37cm x 49cm)	2,000,000
	전면1/2 칼라(18.2cm x 17cm)	800,000
12면	전면1/4 칼라(8.9cm x 17cm)	500,000
	전면 / 칼라(37cm x 49cm)	250,000
		3,000,000

※ 1년 정기계약을 할 경우 20% 할인된 금액으로 광고계약할 수 있습니다.

### 성결신문사

문의: TEL. 070-7132-0091  
E-mail: sknews12@daum.net

## 온라인에서 만나는 성결신문

http://sknews.org

### 한발 앞선 기사와 정보로 다가갑니다

- 중요한 행사나 회의는 당일 기사를 업데이트 합니다. 2주 동안 소식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 지면에 실지 못한 기사나 사진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면에 다 실지 못한 기사나 취재 뒷이야기 그밖에 현장감을 살린 다양한 사진이 제공됩니다.
- 특수들의 의견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사에 대한 댓글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기사의 스크림이 가능합니다. 보관하고 싶은 기사는 따로 옮겨서 추가 할 필요 없이 바로 스크림이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기사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내에서 원하는 기사를 선택, 상대방에게 직접 메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신문과 똑같은 형태의 신문(PDF서비스)이 제공됩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종이신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발행된 신문은 오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07년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결신문사